

단신

요양원서 노력봉사

경북 칠곡군지회 여성회는 6월 9일 지역내 요양원 '연꽃피는 집'을 방문해 시설정소를 돕는 노력봉사를 했다.

참전유공자에 반찬나눔

대구 북구지회는 6월 8일 칠성동2가 북구보훈회관에서 6·25참전유공자를 위한 호국보훈 반찬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도시락 배달봉사

대구 서구지회는 6월 7일 내당23동 공유부에서 '딩동! 사랑의 도시락 배달입미데이~' 봉사활동을 가졌다.

대구 수성구지회는 6월 3일 황금1동 황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플로킹 캠페인 전개

경북 예천군지회 여성회는 6월 7일 예천읍 남산내 위치한 충훈탑 앞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청림의지를 홍보하는 플로킹 캠페인을 전개했다.

현충시설 정비활동

경북 포항시지회 청년회는 6월 4일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수도산 덕수공원에 위치한 반공순국청년동지 위령비를 찾아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공동체 행복자킴이 봉사

경북 청송군지회 여성회는 5월 24일 지역내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5가구를 방문해 공동체 행복자킴이' 봉사를 했다.

모암경로당과 자매결연

경북 김천시 자산동분회는 5월 19일 김천시 자산동 모암경로당에서 회원과 경로당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행사를 가졌다.

‘독도는 경북의 혼, 대한민국의 영토’ 결의

경북도지부, 독도수호결의대회...지부 임원 및 회장단 50여 명

경북도지부(회장 이우경)는 6월 13일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강력 규탄하고,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실효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천명하는 독도 수호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우경 도지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23개 시·군지회 회장단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우리 땅 독도 수호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기 위해 흰 두루마기를 입고, 독도 수호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며 양손에 태극기와 독도기를 들고 결의문을 낭독과, 만



세 삼창을 했다.

이어 참가자 모두가 대형 태극기를 잡고 ‘독도는 경북의 혼, 대한민국 영토’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가진 후 독도 행정

업무와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독도경비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분쇄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6·25전쟁 참전부대’ 특별사진전 개최

| 대구시지부 |

대구시지부(회장 정영만)는 대명동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 6·25전쟁 72주년을 기념해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6·25전쟁 참전부대’ 특별사진전을 진행한다. 이번 사진전에 전시된 패널은 총 42점으로 기념관 입구 및 로비에 배

치돼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2000여 명의 단체 및 가족단위 관람객이 관람했다. 이어 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찾아가는 6·25특별사진전’을 기획하여 6월 한달간 남부도서관과 웃골공원에도 기획전시할 예정이다.



호국영령 추념식 개최

| 경북 포항시지회 |

경북 포항시 송도동분회(회장 이세욱)는 6월 6일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포항시 전투전적비와 미해병 제1전투 비행단 충령비 앞에서 곽동훈 지회 회장을 비롯해 회원과 지역 보훈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몰용사 및 호국영령 추념식을 개최했다.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우리가 앞장섭니다!”

대구 동구·경북 울진 조직간부 및 회원 참가

대구 동구지회(회장 김희목)는 6월 2일 동구 큰고개 오거리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회원들은 지역내 주민들에게 KF-AD 마스크를 나눠주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방법과 의미를 홍보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에너지절약, 클린에너지

실천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했다.

경북 울진군지회(회장 김종훈)는 5월 16일 조직간부 및 회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 망양해수욕장에서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바다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바다정화활동은 행정안전부와 총연맹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실천 결의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해수욕장과 해변에 방치

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및 잡목 등을 집중 수거했다.